
논 문

영국이 없는 유럽

— 1960년대 ‘프랑스의 유럽’을 위한 드골의 유럽통합 정책* —

김 유 정

- | | |
|--------------------------------|---------------------------|
| I. 서론 | IV. 영국의 EEC 가입에 대한 드골의 비토 |
| II. 민족주의는 유럽주의와 상호대립의 관계인가? | V. 결론: 영국이 없는 유럽 |
| III. ‘프랑스의 유럽’을 위한 드골의 유럽통합 정책 | |

국문초록

본 연구는 드골의 유럽통합 정책의 성격을 살펴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1961년 영국의 EEC 가입에 대한 드골의 비토선언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드골은 유럽통합의 선구자들(Founding Fathers)이 주장했던 초국가적인 유럽통합에 찬성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가 직접 유럽정치를 진두지휘했을 때, 그는 경제적인 유럽통합을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공동시장 및 공동농업정책을 출범시키는 데에도 기여했다. 1960년대에 드골은 ‘위대한 프랑스’를 위해 제국이 아닌 유럽을 선택했고 동시에 ‘프랑스를 위한 유럽’을 건설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드골은 초국가적인 유럽공동체를 거부했고 영국이 없는 소유유럽을 선택했다. 이러한 드골의 유럽통합 정책은 프랑스를 위한 유럽 자구책의 활용으로 정의될 수 있다.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5S1A5B5A02016366)

I. 서 론

2016년 6월 23일 영국인들이 “브렉시트(Brexit)”를 선택함으로써 유럽은 새로운 유럽통합사를 써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은 결과에 유럽연합은 충격과 분노를 감추지 않고 ‘영국이 없는 유럽’을 준비하고 있다. 독일 총리 메르켈(Angela Merkel)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과실만 따먹고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 영국’을 비난했고, EU 집행위원장 융커(Jean-Claude Juncker)는 “영국은 서둘러 유럽을 떠나라”며 격앙된 어조로 탈퇴 절차를 서두를 것을 종용했다. 과거 드골이 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 1958) 가입을 희망하는 영국을 가리켜 “영국의 참여가 다른 유럽의 회원국들에게 큰 문제를 안겨다줄 것”¹⁾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했던 기자회견(1963년 1월) 모습을 연상케 하는 대목이다. 과거 타인에 의해서든 현재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든 영국이 유럽이라는 망망대해에 ‘고립된 섬’과 같이 보이는 모습은 매우 흡사하다.

1963년 그리고 1967년 두 번이나 드골에게 거부당했던 영국은 드골이 권좌에서 물러난 후로부터 5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EEC회원국(1973년)이 될 수 있었다. 유럽통합 역사에서 영국이 유럽의 진정한 파트너가 되었던 것은 최초의 유럽통합 서막인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1952)가 설립된 후로부터 21년 만에, 그리고 처음 드골이 비토를 선언했던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었다. 1963년 드골의 예언이 틀리지 않았던 것인가? 유럽통합 초기부터 그리 적극적이지도 그렇다고 아예 무관심하지도 않았던 영국은 회원국으로 활동하는 43년(1973-2016)동안에도 유럽통합 방향과 발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보다는 비판적 또는 회의적인 입장을 계속 나타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회원국이 된 직후 윌슨(Harold Wilson)은 유럽공동체 가입 찬/반 국민투표를 실시(1975년)하여 주변국들을 불편하게 만

1) 영국의 EEC 가입에 대한 드골의 기자회견 내용은 인터넷 사이트의 영상자료(Médiathèque)를 참조. (<http://fresques.ina.fr/de-gaulle/accueil>)

들었고 1980년대 초 대처(Margaret Thatcher)는 영국분담금 문제로 거의 5년 동안 유럽공동체를 마비시켰다.²⁾ 1990년대 이후부터는 영국의 유럽회의주의자들이 끊임없이 EU의 행보에 제동을 걸었고 영국 정부는 유료화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경제통합을 넘어선 정치통합의 심화에는 반대 내지 매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드골이 ‘영국과 함께 가는 것은 고민거리를 짊어지고 가는 것과 같다’고 비난했던 대목이 거듭 상기되는 부분이다. 결론적으로 2016년 영국의 EU 탈퇴 결정이 지난 반세기 유럽통합 역사에서 보여주었던 영국의 이와 같은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는 판단이 든다.

1960년대 ‘영국이 없는’ 유럽통합의 중심에 드골이 있었다. 유럽통합사에서 드골은 유럽통합을 위기에 빠트렸던 ‘제동자’로 널리 알려져 왔다.³⁾ 이처럼 드골의 유럽통합 정치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가장 주된 요인은 영국의 가입에 대한 두 차례에 걸친 거부와 1965-66년의 ‘공석 위기(empty chair crisis)’ 때문이다. 특히, 영국의 가입에 대한 드골의 일방적인 비토 선언 때문에 한때는 우방국임을 자랑했던 영국과 프랑스의 관계가 악화 되었고, 드골은 다른 회원국들로부터 맹비난을 받기도 했다.⁴⁾ 무엇보다 주변국들과의 소통을 결여한 일방적인 기자회견 방식이 비판의 표적이 되었다. 이와 같은 행동 때문에 드골이 통합의 정신과 방향을 거스르는 인물로 평가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드골이 유럽통합의 반대자로 평가받는 또 다른 근본적인 이유는 “위대함이 없는 프랑스는 프랑스일 수 없다”는 그의 “위대한 프랑스

2) 1984년 영국의 마가렛 대처 총리는 영국이 유럽연합에 지불하는 예산액 가운데 약 2/3를 돌려받는 영국예산환급금 규정을 통과시켰다. 당시 영국은 5년이 넘는 논란 끝에 유럽공동체로부터 이런 예외규정을 얻어냈다. 거의 5년간(1979-1984) 유럽공동체를 마비시켰던 예산문제는 프랑스의 순회의장국 때(유럽정상 회담과 각료이사회) 타결되었다. 안병익, 『영국예산환급금: 연속성과 변화』, 『국제지역연구』 10권 2호(2006), 108쪽.

3) 조홍식, 『드골과 미테랑의 유럽정책 비교연구: 개인적 비전과 정책의 제약』, 『유럽연구』 제26권 2호(2008년 여름), 38-39쪽.

4) 같은 논문, 39쪽.

(La grandeur)” 비전⁵⁾ 때문이었다. ‘민족’과 ‘국가’는 그의 정치 활동 전반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였으며 유럽통합 정치도 크게 보면 프랑스 민족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위해 추진되었다.⁶⁾ 다시 말해 드골의 유럽통합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동인은 ‘국가의 이익’, 즉 ‘프랑스 국익’이었다고 볼 수 있다. 영국과 함께 갈 수 없는 드골의 유럽통합 정치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 결과 유럽통합사에서 드골은 종종 연방주의적이고 유럽주의적이었던 지스카르 데스탱(Valéry Marie René Giscard d’Estaing)⁷⁾이나 1980년대 ‘유럽통합의 건설자’임을 자처했던 미테랑(François Mitterrand)⁸⁾과 비교되면서 과도한 민족주의자로 널리 평가되고 있다. 민족주의가 유럽주의와 대치되는 이분법적인 관점에서 드골의 유럽통합 정치는 당연히 부정적인 평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드골은 유럽통합의 반대자였나? 그의 유럽통합 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드골을 유럽통합의 반대자 또는 제동자로만 평가하기 어렵다. 드골은 1958년 프랑스 수반으로 취임되었을 때 유럽 공동체의 실현에 제제를 가하지 않았다. 이전의 유럽석탄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 1952)나 유럽방위공동체(European Defence Community, EDC, 1954) 계획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반대해 왔지만 1957년 로마조약과 함께 출범한 EEC에 대해서는 매우 다른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1960년대에는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 1965)을 적극 추진하였고 관세동맹을 완성하였다. 유럽통합사가 디낭(Desmond Dinan)은 드골이 1950년대 후반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프랑스를 위기에서 구했고, 뿐만 아니라 유럽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5) Charles de Gaulle, *Mémoires de guerre*, t. I(Paris: Plon, 1959), p. 1.

6) 이와 관련하여서는 Maurice Vaïsse, *La grandeur: Politique étrangère du général de Gaulle, 1958-1969*(Paris: Fayard, 1998), pp. 34-52 참조.

7) 이종광, 「지스카르 데스탱의 유럽정책과 유럽통합 발전에 미친 영향: 제도적 개혁과 경제통화동맹을 중심으로」, 『유럽연구』 제28권 1호(2010), 252-255쪽.

8) 조홍식, 「드골과 미테랑의 유럽정책 비교연구: 개인적 비전과 정책의 제약」, 40쪽.

제안했던 영국을 막아 유럽 관세동맹을 완성하면서 오히려 유럽을 살렸다고 평가한다.)⁹⁾ 드골이 유럽통합의 ‘제동자’에서 디낭의 경우처럼 ‘유럽공동체를 구한’ 인물로 상반되게 평가되는 이유는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일까? 1960년대 드골의 유럽통합 정치에 대해서 다룬 본 논문의 문제 제기는 우선적으로 이러한 상반된 평가에서 시작한다.

본론의 첫 장에서는 민족주의와 유럽주의라는 이분법적인 관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 그리고 1958년부터 1968년까지 드골의 유럽통합 정치의 연속성 속에서 영국에 대한 드골의 정치를 분석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두 차례에 걸친 영국의 EEC 가입에 대한 드골의 비토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드골의 전체적인 유럽통합 정책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할 것이다. 드골이 주변 회원국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영국의 EEC 가입을 반대했던 주된 이유는 무엇이었나? ‘영국이 없는’ 유럽통합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드골의 전략적 목표는 무엇이었고 유럽통합을 통해 얻으려했던 프랑스의 이익은 무엇이었나?

II. 민족주의는 유럽주의와 상호대립의 관계인가?

1980년대 학계¹⁰⁾에서는 ‘유럽통합이 민족국가를 극복 또는 대치하기

9) Desmond Dinan, *Europe Recast: A History of European Union*(London: Lynne Rienner, 2004), p. 83.

10) 이와 같은 대표적인 미국의 정치학자들로 호프만(Stanley Hoffmann)과 모랍치(Andrew Moravcsik)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모랍치는 호프만의 정부간 협력주의(intergovernmentalism)를 이어받아 새로운 이론적 틀을 제시했는데, 그 이론은 자유주의적 정부간 협력주의(liberal intergovernmentalism)이다. 이 이론의 핵심 주장은 “통합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위주체는 국가이다. 조약의 주체는 국가이며, 국가는 최고의 의사결정권과 정치적 정통성을 가지며, 정부간 협상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다. 그리고 국가는 합리적 행위자이다. 즉 여러 대안들 가운데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안을 합리적으로 선택한다. 그러므로 유럽공동체와 같은 국제적 제도의 창설은 상호종속적인 합리적 국가들의 선택 및 정부간 협상들의 집합적 결과물”이라

위한 점진적인 과정'이라고 보는 기존의 시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질문은 '사료의 30년 공개금지 규정'에서 벗어나 1950년대 정부사료들이 개방되었던 시점과 거의 일치했다. 대표적인 역사가로 영국의 유럽통합사가 밀워드(Alain Milward)는 유럽통합의 발전 동력이 초국가성을 내포하고 있는 연방주의 사상이 아닌 '국가의 이해' 또는 '전략'이 중요한 요소였다고 주장하였다. 1955년 프랑스 외무부(Quai d'orsay) 문서 자료를 분석한 유럽통합사가 보슈아(Gérard Bossuat) 또한 이와 같은 시각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는 프랑스 제4공화국의 유럽통합 정치의 본질적인 목적이 통합 그 자체에 있었다고 보기보다는, 우선적으로는 프랑스의 경제회복과 이를 기반으로 한 유럽 및 국제무대에서의 영향력 행사를 제고하는 데에 있었고 다음으로는 독일에 대한 안보 및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었다고 설명했다.¹¹⁾ 요약하자면 유럽통합을 이끌었던 근본 동인은 유럽에 대한 이상 또는 열망보다 전후 국민국가가 극복해야 할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이고 유럽통합이 하나의 '해결책'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1945년 이후의 유럽통합 발전에 주목했던 밀워드는 '국가의 이해'('national interests', 최근에는 'national strategies'로 정의)가 유럽통합을 이끄는 강한 동기가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¹²⁾ 더 나아가 국민

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Andrew Moravcsik/Frank Schimmelfennig, "Liberal Intergovernmentalism", Wiener/Diez (ed.), *European Integration Theory*(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pp. 67-87.

11) Gérard Bossuat, *L'Europe des Français, 1943-1959*(Paris: Publication de la Sorbonne, 1996), pp. 436-437.

12) 이와 같은 주장은 유럽통합사의 제1세대 연구자로 알려진 립겐스(Walter Lipgens)와는 다른 관점을 제공하였고, 1960년대 이후의 유럽 현실 정치를 잘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립겐스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반 파시스트적 연방주의 사상을 유럽통합 발전의 근본 사상으로 간주하고 유럽통합을 초국가적인 통합을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다시 말해, 그는 국민국가와 민족주의는 초국가적 유럽통합과 유럽주의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립겐스의 훌륭한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Walter Lipgens (dir.), *Sources de l'histoire de l'intégration Européenne (1945-1955), guide des*

국가의 이해관계가 배제된 유럽통합은 발전될 수 없으며 초국가적 유럽통합은 국민국가를 대체해야 할 상위 조직이 아니라 오히려 전후 국민 국가를 위기에서 구원한 ‘유럽적 해결책(European rescue)’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¹³⁾ 이러한 밀워드 의 테제는 프랑스가 ECSC를 적극 추진했던 과정에서도 잘 설명된다. 전후 모네는 드골에 의해 프랑스 경제 현대화를 위한 경제계획청(Commissariat Général du Plan)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활동하는 동안 모네의 가장 큰 고민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프랑스 경제를 복구하고 경제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이었다. 가장 먼저 그는 프랑스가 2차 세계대전에서 패했던 주요인이 프랑스 석탄 및 철강 산업의 저조에 있다고 보았다. 모네는 독일의 석탄·철강 산업의 활용만이 프랑스 경제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독일경제의 활용은 독일경제의 활성화를 의미했기 때문에 프랑스에게 많은 위험부담이 따르는 주장이었다.¹⁴⁾ 1943년부터 계획되어 1947년까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왔던 프

archives conservées dans les pays de la Communauté(Bruxelle: Bruylant, 1980); Walter Lippens (dir.), *Documents on the History of Europe an Integration*, Vol. 1, *Continental Plans for European Union, 1939-1945*(Berlin and New York: De Gruyter, 1985); Vol. 2. *Plan for European Union in Great-Britain and in Exile*(Berlin and New York: De Gruyter, 1986); Walter Lippens, Wilfried Loth (dir.), *Documents on the History of European Integration*, Vol. 3. *The Struggle for European Union by Political Parties and Pressure Groups in Western European Countries, 1945-1950*(Berlin and New York: De Gruyter, 1988); Vol. 4. *Transnational Organizations of Political Parties and Pressure Groups in the Struggle for European Union*(Berlin and New York: De Gruyter, 1991).

- 13) Alain S. Milward, *The reconstruction of Western Europe, 1945-1951*(London, 1984), pp. 100-106. 밀워드 테제가 오늘날까지 역사가들에게 강한 영감을 주는 이유는 오늘날 유럽연합의 성격을 잘 설명해 준다는 점이다. 유럽연합의 정책과정만 보아도 브뤼셀의 초국적 기구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도되는 것이 아닌 각 회원국 정부의 의사가 깊이 고려된다는 점에서 ‘국가의 이해’가 유럽 통합 정책과 방향에 적극 개입되고 있다.
- 14)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을 참조. Gérard Bossuat, *Les aides américaines économiques et militaires à la France, 1938-1960: Une nouvelle image des rapports de puissance*(Comité pour l’Histoire Economique et Financière de la France, 2001); Sylvie Lefère, *Les relations économiques franco-allemandes de 1945 à 1955: De*

랑스의 대 독일 정책은 루르(라인강 좌안) 지역을 국제화하여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프랑스의 강력한 통제 하에 독일을 무력화하는 것이었다.¹⁵⁾ 다시 말해 루르 지방을 장악하여 산업시설을 해체하고 이 지역의 석탄을 전쟁 배상금으로 받아 자국의 경제 회복에 활용하자는 주장이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프랑스의 주장은 냉전의 기류 속에서 독일의 재무장을 통한 방파제 역할을 기대했던 주변국 및 미국의 반대에 크게 부딪혔다. 특히 미국은 소련과의 대결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서유럽 국가들의 조속한 경제 회복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이는 독일의 자원과 산업을 활용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독일의 무력화를 고집했던 프랑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다.¹⁶⁾ 1949년 프랑스는 독일 경제력을 어떻게 해서든 견제해야 하는 필요성과 동시에 독일 경제 활성화라는 딜레마에 처하게 되었다. 모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초국가적인 유럽통합 방식을 제안했다. 초국가성을 내포하고 있는 슈만플랜은 독일경제의 활용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독일의 경제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지녔다.¹⁷⁾ 결과적으로 프랑스의 슈만플랜은 독일경제의 활용과 견제가 동시에 해결되는 유럽적 해결책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처럼 모네가 고안하고 슈만의 발표를 통해 시작된 ECSC는 프랑

l'occupation à la coopération(Comité pour l'Histoire Economique et Financière de la France, 2009).

- 15) Sylvie Lefèvre, *Les relations économiques franco-allemandes de 1945 à 1955*.
 16) FJME(Fondation Jean Monnet pour l'Europe, 이하 FJME) 23/4/177: Lettre de E. V. Rostow à Jean Monnet(11.05.48). 1947-1950년 독일문제 해결은 미국 외교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었다. 미국은 몇 가지 단계적 원칙을 두고 있었는데, 첫째, 서독의 재건, 둘째, 독·불 관계의 화해, 셋째는 이를 바탕으로 한 서유럽의 재건이었다. 이와 같은 설명은 John Gillingham, *Coal, Steel and the Rebirth of Europe, 1945-1955: The Germans and French from Ruhr conflict to Economic Community*(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참조.
 17) 이와 관련하여서는 김유정, 「장 모네와 미국 정치 엘리트와의 관계를 통해서 본 유럽통합사, 1938-1963」, 『역사문화연구』 제42호(2012. 5) 참조.

스의 고민을 독일의 석탄·철강 산업의 공동 관리를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유럽적 자구책 이었다고 볼 수 있다. “강한 프랑스 없이는 강한 유럽도 또 평화적인 유럽도 존립할 수 없다”¹⁸⁾는 모네의 언급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1949년 프랑스의 대 독일 외교 정책에 대한 고민과 슈만플랜(Le plan Schumann, 1950) 탄생의 관계를 보여주는 많은 모네 관련 사료들이 이러한 테제를 입증한다.¹⁹⁾ 다시 강조하자면 프랑스의 이익이 배제된 유럽통합이 가능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민족주의와 유럽주의를 상호 대립의 관계 속에서 살펴볼 때 이와 같은 해석은 불가능하다. 강한 프랑스를 전제로 할 때 강한 유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드골의 유럽통합 정책을 균형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도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 이익이 강하게 투영된 유럽통합’이라는 이와 같은 테제를 적용하여 1960년대 드골의 유럽통합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III. ‘프랑스의 유럽’을 위한 드골의 유럽통합 정책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드골은 유럽을 위기에 빠트리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무엇보다 그의 행동이 갑작스런 기자회견을 통해 회원국들에게 통보하는 매우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방식이었다는 점에서 주변국들의 불만과 우려를 낳았다.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기자회견장에서 영국의 EEC 가입에 대한 거절을 거세게 표현하는가 하면, 공동농업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프랑스가 불리한 입장에 섰을 때 모든 공동체 기구의 참석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유럽의 운영을 중단시켰다. 이러한 행동은 드골이 마치 유럽을 안중에 두지 않았다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18) FJME AME 33/1/3: Une note de Jean Monnet(05.08.43).

19) FJME AMG 5/1/3: Note de réflexion de Jean Monnet(28.04.50); FJME AMG 5/1/5: Note de réflexion de Jean Monnet,(03.05.50) [note confidentielle]. 프랑스의 대 독일 외교정책에 대한 고민과 슈만플랜에 관한 연구는 김유정, 『프랑스 독일정책의 딜레마와 유럽통합, 1944-1950』, 『독일연구』 제29호(2015.6) 참조.

보이기에 충분했다.

드골의 이와 같은 일방주의적인 유럽정치의 성격은 어떠한 조건과 배경에서 나타난 것일까? 우선적으로 당시 유럽이 분명 오늘날의 EU와는 다른 유럽이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드골 재임 시기는 유럽경제공동체 출범과 함께 시작하여 처음 제도화되는 10여년 과정으로 프랑스가 슈만플랜 이니셔티브를 취함으로써 유럽공동체 안에서 주도적인 리더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시대였다. 따라서 당시 유럽은 ‘프랑스의 유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프랑스의 영향과 결정이 매우 컸다. 또한 1960년대는 1952년 ECSC의 성과에 이어 1957년 EEC가 출범했다고는 하나, 하나의 통합체에 대한 유럽 국가들 간의 일치된 합의가 없었고, 따라서 여러 갈래의 경쟁적인 유럽통합 모델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다.²⁰⁾ 드골은 자신의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직접 의견을 묻는 국민투표나 국민에게 의견을 표명하는 기자회견 방식을 매우 선호했다.²¹⁾ 그렇기 때문에 드골의 유럽통합 정책과 방향이 더욱 두드러졌던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프랑스 정치 제도의 특성상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기에 유럽 정책에 있어서 드골의 이러한 행동은 큰 영향과 동시에 충격을 주었다.

드골이 1958년 재임했을 당시 이전의 유럽통합에 비판적이었던 것을 목격한 많은 정치가들은 공동체의 순탄한 실현이 어려울 것이라 예측했다.²²⁾ 프랑스 정치가들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 또한 드골이 유럽통합에, 특히 ECSC나 EDC와 같은 초국가적 성격의 유럽

20) 당시 경쟁적인 유럽통합 모델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1)국가연합(confédération), 2)연방(fédération), 3)초국가적 부분통합(autorité spécialisée à caractère supranational)이다. 국가연합은 드골주의자들이, 연방주의는 스피넬리(A. Spinelli)같은 연방주의자들이 그리고 초국가적 부분통합은 모네에 의해 계획되고 슈만에 의해 발표된 슈만플랜의 근간을 이루는 방법이었다. 초국가적인 유럽통합 방향을 지지했던 초대 유럽집행위원회 위원장 할슈타인(Walter Hallstein)을 비롯하여, 모네와 스팍은 드골의 정부간주의적 유럽통합 정책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었다.

21) 허만, 『드골의 외교정책론』(서울: 집문당, 1997), 10-15쪽.

22) Roger Baillet, *De Gaulet et l'Europe*(Lyon: l'Hermès, 1979), p. 43.

통합에 비판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동체가 잘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와 예상과는 달리 드골은 공동체의 실현에 반대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공동농업정책을 출범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했음은 물론 ‘국가들의 유럽’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정치적인 유럽의 건설을 주도하려는 입장을 보였다.²³⁾ 즉 유럽의 경제통합 뿐만 아닌 정치통합까지도 적극 모색했다는 점이다.²⁴⁾ 드골은 국가 주권이 보장되는 차원에서 유럽통합을 추진하였고, 뿐만 아니라 프랑스 중심의 유럽을 건설하고자 했다.

1960년대 드골의 재임 시기 총체적인 유럽통합 정책의 성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드골은 유럽 통합의 선구자들이 주장했던 연방주의적 유럽통합에 찬성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권좌에서 직접 유럽정치를 진두지휘할 때는 경제적인 유럽통합을 수용 또는 적극적으로 관리하였고 더 나아가 공동시장 및 공동농업정책을 출범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이처럼 드골은 겉으로 보였던 과도한 민족주의자의 이미지와는 달리 기존의 경제적 유럽통합을 수용하였고 더 나아가 발전시켰으며 정부간주의의 형식을 통한 정치적 부분에서의 통합도 시도하였다. 1960년대 드골이 이전과는 다른 적극적인 모습으로 유럽통합 문제를 다루었던 주된 이유는 무엇이었나? 주 동인을 프랑스의 국익, 특히 탈식민화 과정에서 유럽의 필요성²⁵⁾과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

23) Hungdah Su, *Jean Monnet face à la politique européenne du général de Gaulle de 1958 à 1969*(Université de Paris-Sorbonne: Paris IV, 1988), p. 139; Joan Touchard, *Le gaullisme 1940-1969*(Paris: Seuil, 1978), pp. 212-213.

24) 드골이 유럽의 정치통합을 적극 도모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 안병억, 「1960년대 초 유럽주의와 대서양주의: 드골의 “유럽” 대 미국의 “유럽”」, 『유럽연구』 제26권 1호(2008).

25) 탈식민화와 유럽통합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나 상대적으로 이와 같은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국내 제4공화국의 탈식민화와 유럽통합을 설명하는 연구로 박지현, 「유럽 통합과 프랑스 식민주의의 제문제」, 『프랑스사 연구』 제32호(2015.02); 김승렬, 「유라프리카(Eurafrica): 1950년대 유럽통합과 프랑스 식민제국의 자태 전환」, 『유럽연구』 제25권 2호(2007); 프랑스 연구 결과물로는 Yves Montarsolo, *L'Eurafrrique, contrepoint de l'idée d'Europe: le cas français de la fin de Deuxième guerre mondiale aux négociations des traités de*

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요인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상호 밀접한 상관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영국의 EEC 가입에 대한 주된 반대 이유와도 깊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1958년 드골이 취임하였을 때 프랑스는 이미 탈식민화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가 ‘국가의 구원자’로 권좌에 다시 오를 수 있었던 것도 이와 같은 위기 때문이었다.²⁶⁾ 프랑스 정치세력들이 그에게 전권을 위임하였고, 특히 새로운 헌법을 제정할 권한까지 부여했다는 측면에서 당시 위기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드골은 제국의 탈식민화를 안정적이고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했다.²⁷⁾ 제4공화국이 유럽통합을 통해 탈식민화의 돌파구를 찾으면서 제국과 유럽의 양립을 시도했던 것에 반해²⁸⁾ 드골은 탈식민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위대한 프랑스’를 위해 제국이 아닌 유럽을 선택하는 것이 시대에 부응한 적절한 해결책이라고 여겼다. 즉, 그의 ‘원대한 구상(Grand Design)’도 프랑스가 ‘유럽의 중심 국가’가 되었을 때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이는 영국이 영연방과의 관계를 희생시키면서 유럽과 함

Rome(Aix-en-Provence: Publications de l'Université de Provence, 2010); Hassane Zouiri, Le partenariat euro-méditerranéen: contribution au développement du Maghreb: le cas du Maroc(Paris: l'Hamattan, DL, 2010); Marie-Thérèse Bitsch, Gérard Bossuat (dirs.), L'Europe unie et l'Afrique, de l'idée d'Eurafrrique à la Convention de Lomé I.(colloque international d'histoire, Paris, 1er et 2 avril 2004, 2005).

- 26) 이용재, 『드골과 제 5 공화국의 탄생-‘공화주의 전통’의 연속과 단절-』, 『역사학연구』 제37호(2009), 165쪽.
- 27) 드골은 1958년부터 1962년 알제리 독립까지 이 문제를 빠르게 정리하고 집권 후기에는 자신만의 외교정책에 몰두하고자 했다. 조홍식, 『드골과 미테랑의 유럽정책 비교연구: 개인적 비전과 정책의 제약』, 42쪽.
- 28) 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가 직면한 가장 큰 외교문제 중 하나는 탈식민화이고 다른 하나는 유럽통합이었다. 전후 프랑스는 식민제국이라는 이미지를 청산하면서도 동시에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식민지 체제를 유지하고자 했다. 그 결과 1946년 프랑스 연합(Union française)이 창설되었다. 그러나 이후 프랑스는 인도차이나 전쟁(1946-1954), 모로코 독립전쟁(1947-1956), 튀니지 전쟁(1949-1956)으로 프랑스 연합이 와해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그 돌파구를 유럽통합을 통해 찾으려고 했다. 박지현, 『유럽 통합과 프랑스 식민주의의 제문제』.

게 할 시스템을 생각할 수 없었던 것과는 반대의 선택으로 이해될 수 있다. 1960년대 드골은 제국을 버려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유럽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주요 정책 기조인 ‘프랑스의 위대함’을 실현하고자 했던 것이다. 부를랑주(Jean-Louis Bourlange)도 지적하고 있듯이 프랑스의 유럽에 대한 의지는 드골이 용기를 가지고 추진했던 프랑스 제국의 상실을 잊기 위해 설계된 장치, 즉 제국의 대용품이었다.²⁹⁾

드골이 유럽공동체를 선택했던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프랑스에게 경제성장의 기회로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제국을 버릴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프랑스 경제 환경 또한 유럽 역내 시장으로 그 중요성이 자동 이행되었을 것이다. 1957년 관세동맹과 공동시장을 목표로 한 EEC 출범이래 유럽 6개국의 경제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였다. 드골은 이러한 성장을 통해 프랑스 경제 현대화 및 농업의 안정이라는 두 가지 프랑스 경제 개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³⁰⁾ ‘국가의 구원자’로 재집권에 성공한 드골이 ‘위대한 프랑스’ 비전만으로 국민들로부터 권력유지를 위한 충분한 동의를 얻어내는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성공이 반드시 필요했으며 그것은 프랑스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웠다. 특히 프랑스 농업은 안정적인 유럽의 역내 시장과 절대적인 지원을 필요로 했다. 드골은 이러한 프랑스의 농업문제를 유럽의 공동농업정책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드골은 이전 공화국에서부터 제기되어왔던 탈식민화 위기와 프랑스 국가의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해결하기 위해 유럽통합을 적극 추진하였다. 유럽통합이라는 현실이 주어졌을 때 드골은 이를 받

29) Jean-Louis Bourlange, “From De Gaulle to Mitterrand-Conflict and Continuity in French European Policy”, Martyn Bond, Julie Smith and William Wallace (eds.), *Le partenariat euro-méditerranéen: contribution au développement du Maghreb: le cas du Maroc*(London: The Greycoat Press, 1996), p. 124.

30) Desmond Dinan, *Europe Recast: A History of European Union*, p. 83.

아들이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종해 나가려고 했다. 분명한 것은 드골에게 유럽통합보다 중요했던 것이 프랑스를 강하게 하는 것이었다는 점이다. 드골에게 유럽은 그 자체로서 중요한 정치적 목표이기보다는 프랑스를 구하기 위한 하나의 지렛대에 불과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유럽을 위협에 빠트리는 무리수도 서슴지 않았던 것이다. 이처럼 드골의 유럽통합 정책은 비록 관세동맹 및 공동농업정책이 마련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프랑스의 이해관계를 과도하게 고려한 ‘기회주의적 유럽주의’라는 한계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드골의 이와 같은 유럽정책의 성격은 다음 장에서 살펴볼 영국의 EEC 가입에 대한 비토 선언 과정에서 더욱 극명하게 나타난다.

IV. 영국의 EEC 가입에 대한 드골의 비토

영국의 유럽공동체 가입을 위한 협상들은 1961년 10월에 시작되었으며 협상개시 15개월 후인 1963년 1월 14일 드골에 의해 거부당했다.³¹⁾ 영국의 EEC 가입은 분명 유럽통합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드골의 경제 및 외교 전략과 크게 충돌하는 것이었다. 본 장에서는 드골이 영국을 반대했던 근본적인 이유를 그의 ‘원대한 구상’으로 알려진 지정학적 전략의 관점과 프랑스의 경제적 이해의 관점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³²⁾

31) 드골과 영국 협상단의 갈등 및 불일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연구로는 Gérard Bossuat, *L'Europe des Français, 1943-1959*, pp. 379-399; Hungdah Su, *Jean Monnet face à la politique européenne du général de Gaulle de 1958 à 1969*; Desmond Dinan, *Europe Recast: A History of European Union*, pp. 83-123; 그리고 국내 연구로는 신종훈, 『영국의 유럽자유무역지대의 구상과 내부 논의』, 『영국연구』 제21호(2009) 참조.

32) 정치학에서 드골이 영국을 반대했던 이유에 대한 해석으로는 크게 두 가지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전통주의자들이 설명하는 지정학적인 이유와 수정주의자들이 설명하는 경제적 이유다. 지정학적인 이유를 들어 설명하는 대표적인 정치학자들로는 호프만(Stanley Hoffmann), 캠프스(Miriam Camps) 그리고 하스

드골의 지정학적 전략은 ‘원대한 구상’을 통해 설명된다. 드골의 ‘원대한 구상’의 핵심에는 프랑스의 주권과 위대함을 고취시키고 군사력을 증진하여 외교 무대에서 특권을 행사하는 것이었다.³³⁾ 그리고 미·소 거대 블록, 특히 미국의 영향력으로부터 프랑스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목적에서 드골의 유럽통합 정책도 지속될 수 있었다. 드골은 유럽공동체 정책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NATO로부터 프랑스의 독자성을 확인하고 핵무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드골의 원대한 구상은 미국과 긴밀하고도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영국이 유럽의 일원이 되었을 때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드골은 영국이 유럽공동체 회원이 되는 자격의 부적절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영국은 섬나라로 대륙과 상이하다. 또 영국이 가입하면 이런 상이성 때문에 회원국들의 결속이 너무 약해져 공동체가 오래 존속하지 못하고 결국 미국에 의지하며 지시를 받는 거대한 ‘대서양 공동체(Atlantic Community)’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영국이 미국의 ‘트로이 목마’가 되어 유럽공동체의 미국화에 앞장설 것”³⁴⁾이라고 주장하며 영국의 가입 반대 이유를 밝혔다. 드골의 이러한 모습은 그가 분개하고 있는 것이 본질적으로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문제에 대한 영·미간의 협력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드골은 미국에 대해 적대적인 태

(Ernst Haas)등이 있다. 반면 경제적인 이유가 핵심이었다고 설명하는 수정주의 학자들로는 밀워드(Alan Milward), 린츠(Frances Lynch), 루들로우(N. Piers Ludlow), 쿤첸(Ann-christina Knudsen), 왈로우젯(Laurent Warloutzet) 등이 있다. 대표적으로 모라브치크(Andrew Moravcsik)은 지정학적인 이유가 가장 중요했다는 시각에 반론을 제기하며 영국의 가입으로 프랑스의 경제적 이익, 즉 공동농업 정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해 드골이 영국의 EEC가입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Andrew Moravcsik, *The Choice for Europe: Social Purpose and State Power from Messina to Maastricht*(Cornell University Press, 1998), pp. 159-237.

33) Garret Martin, “Conclusion: A Gaullist Grand Strategy?”, Christian Nuenlist, Anna Locher and Garret Martin (eds.), *Globalizing de Gaulle: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French Foreign Policies, 1958-1969*(Lanham, MD: Lexington Books, 2010).

34) 기자회견 내용: <http://fresques.ina.fr/de-gaulle/accueil>

도를 유지하였고 표면적으로 영국이 유럽에 진입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자신의 지정학적인 전략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탈식민화 이후 유럽이라는 무대를 통해 강대국의 체면을 유지하려고 했던 드골의 세계 전략은 분명 미국과 충돌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유 뿐만은 아니었다. 드골은 개인적으로도 미국에 대한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 시작은 2차 세계대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2차 세계대전 중 드골은 1943년 프랑스 국민 해방 위원회(Le Comité français de Libération nationale, CFLN)가 결성될 당시 미국으로부터 거부당한 쓰라린 상처가 있었다. 1942년 카사블랑카 회담³⁵⁾에서 드골을 그리 반가워하지 않았던 루즈벨트는 프랑스군의 영웅인 지로(Henri Giraud)를 드골과 동석시키면서 자유 프랑스의 지도자로 드골 대신 지로를 옹립하려고 시도하였다.³⁶⁾ 미국은 “드골이 고집이 세고 유럽의 여타 파시스트와 유사하게 프랑스인들이 가지고 있는 콤플렉스를 이용해 프랑스를 구할 에너지를 찾고 있다”³⁷⁾고 판단했다. 루즈벨트는 “지로 해결책(solution Giraud)”이라는 정치적 구상을 가지고 드골과 맞서면서 전면에 지로를 내세웠던 것이다.³⁸⁾ 카사블랑카 회담을 통해 드골이 확인했던 것은 앵글로 색슨의 두 정상이 지로를

35) 카사블랑카 회담은 앞으로의 국제군사전략을 기획하기 위해 루즈벨트, 처칠, 그리고 그들의 군사 보좌관 및 참모총장이 개최한 회의였다. 이 회의에는 스탈린도 초청되었으나 참석하지 않았다. 회의 내용은 북아프리카 원정을 마친 뒤 시칠리아에 대한 침공 결정, 태평양 전장에 대한 병력 할당, 극동 지역의 주요 공격선 결정, 독일에 대한 집중 폭격 합의 등 주로 군사적인 것이었다. 이 회의에서 루즈벨트는 북아프리카 프랑스 군사령관으로서 알제를 중심으로 레지스탕스를 이끌었던 지로를 참석시킴으로써 드골을 견제하고자 했다. 당시 드골과 지로는 경쟁관계였다. FJME AME 25: La Situation de la France libre avant la Mission de Jean Monnet(position anglo-américaines).

36) *Ibid.*

37) *Ibid.*

38) Andre Kaspi, *La Mission de Jean Monnet à Alger, mars-octobre 1943*(Paris: Publication de la Sorbonne, 1988), p. 26. 이와 관련해서는 김유정, 「장 모네(Jean Monnet)의 인적 네트워크와 유럽통합 - 1943년 알제리 임무(Mission d'Alger)와 유럽통합 구상을 중심으로-」, 『서양사학연구』 제39집(2016) 참조.

지지한다는 것이었다.

영·미 두 국가의 특별한 관계에 대한 드골의 오래된 트라우마와 불신은 1962년 12월 ‘나소협약(Nassau Agreement)’을 통해 더욱 증폭되었다. 이 협약을 통해 드골은 영국의 주 협상 대상국이 유럽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나소협약’은 미국과 영국의 특별한 방위 체계로 이 협약을 통해 맥밀란은 영국산 핵탄두 운반을 위해 개발비용이 많이 드는 스카이볼트 미사일(Skybolt missile)을 포기한 후 미국산 폴라리스 미사일(Polaris missile)을 제공하겠다는 케네디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폴라리스 핵탄두의 사용은 영국과 미국의 공동 통제하에 운용되며, 영국은 미국의 기술을 지원받아 핵잠수함을 건설하도록 결정하였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드골이 원했던 것은 영국이 보유한 발전된 핵 기술을 프랑스와 함께 공유하는 핵 협력이었다. 나소협약 체결 1주일 전인 1962년 12월 15-16일 랑부이예(Rambouillet) 회담에서 맥밀란은 핵 기술을 프랑스와 공유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회담의 분위기는 냉랭했고 이와 같은 결과는 드골이 영국을 유럽으로부터 배제시키는데 있어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다.³⁹⁾ 이와 같이 첨예하게 대립된 드골과 앵글로색슨 국가들과의 ‘불편한 관계’는 1963년 영국의 가입에 대한 드골의 비토선언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어 진행되어 왔던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치학자 베리어(A. Verrier)는 나소협약이 성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드골은 분명 영국의 유럽공동체 가입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⁴⁰⁾ 드골이 영국을 반대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프랑스가 EEC를 장악해야 한다는 결심에서 근거한다고 베리어는 지적하고 있다. 역사가 보쉬아 또한 농민의 지지를 통해 재집권에 성공한 드골이 프랑스 농업과 농민

39) 김영준, 『유럽통합에 대한 비전과 갈등-영국 『보수주의』와 프랑스 『Gaullism』을 중심으로』, 『유럽연구』 제13권(2001), 313쪽.

40) Anthony Verrier, *Through the Looking Glass: British Foreign Policy in an Age of Illusions*(London: Cape, 1983), p. 166.

들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농업 분야의 개발 내용을 담고 있는 공동 시장을 지지했다고 설명한다.⁴¹⁾ 이러한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모랍칙 또한 앞서 설명한 지정학적인 설명보다 더욱 중요했던 이유가 프랑스의 경제적 이익, 즉 공동농업정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⁴²⁾ 실제로 드골은 표면적으로 영국의 농업보조정책이 유럽공동체의 공동농업정책(CAP)과 다르다며 영국 가입의 거부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영국은 농민들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직접 지불(direct payment) 정책을 채택했지만 유럽경제공동체 회원국들은 농산물 가격지원이 핵심이었다. 드골은 ‘영국이 과연 영연방에 대한 모든 기득권과 영연방 국가들과의 사이에서 얻을 수 있는 농업에 대한 특권을 포기함과 동시에 자국의 무역체제를 포기하고, 유럽의 무역체제에 순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역설하기도 하였다.⁴³⁾

당시 영국은 영연방(Commonwealth) 국가들과 호혜관세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상태였고 이를 통해 정치적 독립성을 잃지 않으면서 동시에 큰 가격의 이득을 챙길 수 있었기 때문에 1957년 EEC의 불참을 결정했다.⁴⁴⁾ 더욱이 영국은 불참에 그치지 않고 거의 동시에 EEC에 참여하지 않은 유럽경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OEEC)의 나머지 국가들을 설득하여 자유무역지대(la zone de libre-échange)의 창설을 주도하였다. 영국이 주장했던 자유무역지대 창설 기획에는 농업이 빠진 공산품 자유무역을 창설한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⁴⁵⁾ 대륙 중심의 공동체가 설립될 경우 장기적으로 볼 때 영국의 공산품 산업은 큰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판단한

41) Gérard Bossuat, *L'Europe des Français, 1943-1959*, p. 384.

42) Andrew Moravcsik, *The Choice for Europe: Social Purpose and State Power from Messina to Maastricht*, pp. 159-237.

43) 김영준, 「유럽통합에 대한 비전과 갈등-영국 『보수주의』와 프랑스 『Gaullism』을 중심으로」, 316쪽.

44) Pierre Gerbet, *La construction de l'Europe*(Paris: Notre Siècle, 1983), p. 234.

45) 신중훈, 「영국의 유럽자유무역지대의 구상과 내부 논의」, 245쪽.

영국은 낮은 관세와 보다 넓은 규모의 무역을 통해, 특히 독일과 네덜란드를 회유해서 유럽공동체로부터 이탈시키려고까지 하였다.⁴⁶⁾ 유럽 공산품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게 된다면 영국은 역외 관세자율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였고 따라서 영연방 국가들의 호혜관세제도를 본질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으며 영국이 원하지 않았던 초국가적 통합에 연루될 염려도 없었다.⁴⁷⁾ 이는 어디까지나 영국이 주도하는 자유무역지대를 통해 유럽 공동시장을 견제하고 궁극적으로는 EEC의 파열을 이끌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요컨대 영국은 자신의 이해를 위해 공동체 불참은 물론 그 존립마저 크게 위협했던 것으로 보인다.

드골의 영국 거부는 본질적으로는 ‘프랑스를 위한 유럽’을 위해서 출발했다고 할지라도 영국의 의도와 목적을 정확히 알았던 드골의 판단이 발휘된 결과로 보인다. 1958년 11월 13일, 드골은 “프랑스가 영국의 처세에 강경히 대응하지 않으면 곧 영국의 계획에 흡수될 것이라고 경종을 울렸다.”⁴⁸⁾ 곧바로 영국의 자유무역지대 창설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공동시장의 의무조항을 지킬 것을 선언했다(1959년 1월 1일). 그 이유로 드골은 영국이 제안하는 자유무역지대는 공동의 외부 관세도 없고 농업 분야의 공동 규범도 없기 때문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영국을 배제하기 위해서 드골은 GATT의 나머지 모든 국가들에게 관세를 10% 낮추고, 수입 분담의 20%의 확대 적용을 제공하였다.⁴⁹⁾ 그 결과 OEEC를 이용해 유럽공동체의 긴장과 파열을 조장했던 영국의 계획은 결국 실패하게 되었고 반면 공동시장은

46) Desmond Dinan, *Europe Recast: A History of European Union*, p. 90.

47) 신종훈, 『영국의 유럽자유무역지대의 구상과 내부 논의』, 245쪽. 6개국 관세동맹 형식의 공동시장과 영국이 구상한 자유무역지대의 공통점은 역내에서 관세가 없는 자유무역을 보장하는 점이다. 그러나 두 안의 핵심적인 차이점은 공동시장에서는 제 삼국에 대한 공동관세정책을 포기해야 하는 반면, 자유무역지대에 참가하는 국가들은 제 삼국에 대해서 각국의 독자적인 대외관세 정책을 유지할 수 있다.

48) Gérard Bossuat, *L'Europe des Français, 1943-1959*, *op.cit.*, p. 390.

49) *Ibid.*, p. 391.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다.⁵⁰⁾ 앞서 디낭도 평가했던 것처럼 EEC는 드골의 반영국정치를 통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영국의 EEC 가입에 대한 드골의 반대 이유가 단순히 영국이 EEC 협상을 방해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은 다소 지나친 감이 있다. 이보다 본질적인 이유는 앞으로의 CAP 행보가 영국으로부터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모랍칙이 주장하는 것처럼, 만일 영국이 EEC와 함께 했다면 관세동맹이나 CAP는 불가능했을 것이⁵¹⁾ 분명했다. 이는 EEC를 통해 낙후된 프랑스 경제를 현대화하고, 프랑스 농업을 보호하고자 했던 드골의 전략과 크게 상충하는 것이 분명했다.

V. 결론: 영국이 없는 유럽

저명한 프랑스 역사가 지로(René Girault)는 “현재의 유럽은 의구심의 결과이다”⁵²⁾라고 언급했다. 유럽은 보다 견고한 정치 통합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세계 경제 및 경제 위기에 직면하여 유럽은 강한 경제적 단일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민족주의 기승과 압력 속에서 다국적 조화(융합)를 견고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같은 의심 섞인 질문들이 오늘날의 유럽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2000년대 개진된 유럽통합 위기의 파노라마에 비추어 보면서 지로의 언급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2004년 ‘동유럽확대’와 ‘유럽정체성의 위기’, 2008년 미국 발 경제 위기에서 시작된 유로 존(Euro Zone) 위기, 작금의 난민문제, 테러 그리고 브렉시트에 이르는 위기들은 곧바로 ‘통합 유럽이 지속될 수 있는가?’와 같은 의심으로 이어졌다. 그런

50) Hungdah Su, *Jean Monnet face à la politique européenne du général de Gaulle de 1958 à 1969*, pp. 147-148.

51) Andrew Moravcsik, “Charles de Gaulle and Europe: The New Revisionism”, *Journal of Cold War Studies*, vol. 14, no. 1(2012), p. 58.

52) René Girault (dir.), *Identité et Conscience européennes au XX^e siècle*(Paris: Hachette, 1994), p. 13.

데 지난 60년의 유럽통합사를 회고해 볼 때, 여러 번 있었던 위기와 어려움이 유럽통합 발전 단계에서 발목을 잡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는 오히려 유럽의 방향과 목표를 새롭게 다지는 재도약의 계기로 작용하기도 했다. 앞의 지로 교수가 유럽의 정체성을 ‘위기’와 ‘의구심’으로 설명했던 이유도 바로 유럽의 위기, 정확히 말해 위기에 직면한 유럽이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유럽통합이 지속·발전되어 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어느 정도 영국의 태도에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시켜왔던 EU는 영국의 ‘EU 탈퇴’ 결정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이나 영국이 없는 유럽을 준비하기에 매우 분주해 보인다. EU의 입장에서는 “브렉시트” 결과로 ‘탈퇴 도미노 현상’과 같은 큰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고,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했던 영국의 분담금 없이 새로운 살림을 꾸려나가야 하는 과제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영국이 없는 유럽’이라는 새로운 ‘유럽 정체성’을 써 나가야 하는 혼란도 적지 않게 예상된다. 그렇지만 “유럽은 흐린 날에만 움직인다”는 누군가의 말처럼 위기는 새로운 재도약을 위한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960년대 드골의 유럽통합 정치는 앞의 지로가 언급했던 것처럼 유럽의 위기와 의구심의 단면을 보여주지만 역설적으로 동시에 통합의 발전 메커니즘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드골은 처음부터 유럽통합에 그리 큰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탈식민화 및 경제 발전이라는 프랑스 현실에 직면하여 유럽통합을 전략적으로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정책 기조인 ‘위대한 프랑스’ 구상을 실현하고자 했다. 비록 유럽통합을 위한 드골의 동기부여가 순수하지만은 않았지만 제국이 아닌 유럽을 선택해 결과적으로는 유럽 공동시장이 완성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드골의 이와 같은 유럽통합 정책은 한 마디로 말해 ‘자기구체를 위한 유럽 자구책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정의될 수 있다. 드골의 유럽통합 정책의 성격은 전체적으로 볼 때 유럽통합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가장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프랑스의 유럽통합 정책의 전형을 잘 보여준다.

유럽통합을 위한 드골의 이해관계는 분명 프랑스의 영광의 제고와 경제 발전에 있었다. 이와 같은 프랑스의 전략 및 이해추구 과정에서 드골은 분명 초국가적인 유럽연방을 반대했고 영국이 없는 소유립을 선택했다. 그러나 그는 서독과의 보다 돈독한 관계정립을 통해 유럽통합을 추진하였고, 영국을 배제함으로써 공동시장이 자유무역지대로 변질되는 것을 막았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유럽통합 정책에 대한 드골의 ‘오명’이 면죄부를 받기에 충분하다는 결론은 아니다. 드골은 ‘국가이익’이라는 현실 앞에서 근본적인 유럽통합의 정신, 즉 평화와 공존의 유럽건설이라는 목표를 변색시켰고 또 주변국들과의 소통을 결여한 채 영국과의 심각한 갈등의 관계를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더욱 그렇다. 또한 프랑스 주도의 유럽통합을 통해 구시대 패권정치를 유럽에서 실현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의 유럽통합 정책이 부정적인 평가로부터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경상대학교 유럽연구소)

〈투고일자: 2016. 1. 23, 심사일자: 2017. 2. 2, 게재확정일자: 2017. 2. 3〉

▶ **주제어** : 드골(Charles de Gaulle), 유럽통합(European Integration),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유럽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영국이 없는 유럽(Europe without the United Kingdom)

참고문헌

1. 1차 문헌

- FJME(Fondation Jean Monnet pour l'Europe, 이하 FJME) 23/4/177: Lettre de E.V. Rostow à Jean Monnet(11.05.48).
 FJME AME 33/1/3: Une note de Jean Monnet(05.08.43).
 FJME AMG 5/1/3: Note de réflexion de Jean Monnet(28.04.50).
 FJME AMG 5/1/5: Note de réflexion de Jean Monnet(03.05.50) [note confidentielle].
 USDOS/JT(John Tuthill, U.S. department of State Files) 7, US Department of State, John Tuthill Papers, Dispatch 867(11/12/58).
 FJME AME 25: La Situation de la France libre avant la Mission de Jean Monnet(position anglo-américaines).

2. 연구문헌

- 김승렬, 『유라프리카(Eurafrica): 1950년대 유럽통합과 프랑스 식민제국의 자태 전환』, 『유럽연구』 제25권 2호(2007).
 김영준, 『유럽통합에 대한 비전과 갈등-영국 『보수주의』와 프랑스 『Gaullism』을 중심으로』, 『유럽연구』 제13권(2001).
 김유정, 『장 모네(Jean Monnet)의 인적 네트워크와 유럽통합 - 1943년 알제리 임무(Mission d'Alger)와 유럽통합 구상을 중심으로-』, 『서양사학연구』 제39집(2016).
 박지현, 『유럽 통합과 프랑스 식민주의의 제문제』, 『프랑스사 연구』 제32호(2015).
 안병익, 『영국예산환급금: 연속성과 변화』, 『국제지역연구』 10권 2호(2006).
 _____, 『1960년대 초 유럽주의와 대서양주의: 드골의 “유럽” 대 미국의 “유럽”』, 『유럽연구』 제26권 1호(2008).
 이용재, 『드골과 제 5 공화국의 탄생-‘공화주의 전통’의 연속과 단절-』, 『역사학연구』 제37호(2009).
 이종광, 『지스카르 데스탕의 유럽정책과 유럽통합 발전에 미친 영향: 제도적 개혁과 경제통화동맹을 중심으로』, 『유럽연구』 제28권 1호(2010).
 조홍식, 『드골과 미테랑의 유럽정책 비교연구: 개인적 비전과 정책의 제약』, 『유럽연구』 제 26권 2호(2008).
 허만, 『드골의 외교정책론』(서울: 집문당, 1997).

- Baillet, Roger, *De Gaullet et l'Europe*(l'Hermès, 1979).
- Bitsch, Marie-Thérèse, Bossuat, Gérard (dirs.), *L'Europe unie et l'Afrique, de l'idée d'Eurafrique à la Convention de Lomé I.*(colloque international d'histoire, Paris, 1er et 2 avril 2004, 2005).
- Bossuat, Gérard-Andreas Wilkens, *Jean Monnet, l'Europe et les chemins de la Paix*(Paris: Publications de la Sorbonne, 2009).
- Bossuat, Gérard, *L'Europe des Français, 1943-1959*(Paris: Publication de la Sorbonne, 1996).
- _____, *Les aides américaines économiques et militaires à la France, 1938-1960: Une nouvelle image des rapports de puissance*(Comité pour l'Histoire Economique et Financière de la France, 2001).
- Bourlange, Jean-Louis, "From De Gaulle to Mitterrand-Conflict and Continuity in French European Policy," Martyn Bond, Julie Smith and William Wallace (eds.), *Eminent Europeans: Personalities who shaped contemporary europe*(London: The Greycoat Press, 1996).
- De Gaulle, Charles, *Mémoires de guerre*, t. I(Plon, 1959).
- Dinan, Desmond, *Europe Recast: A History of European Union*(Lynne Rienner, 2004).
- Gerbet, Pierre, *La construction de l'Europe*(Paris: Notre Siècle, 1983).
- Gillingham, John, *Coal, Steel and the Rebirth of Europe, 1945-1955: The Germans and French from Ruhr conflict to Economic Commun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 Girault, René (dir.), *Identité et Conscience européennes au XX^e siècle*(Paris: Hachette, 1994).
- Kaspi, Andre, *La Mission de Jean Monnet à Alger, mars-octobre 1943*(Paris: Publication de la Sorbonne, 1988).
- Lefère, Sylvie, *Les relations économiques franco-allemandes de 1945 à 1955: De l'occupation à la coopération*(Paris: Comité pour l'Histoire Economique et Financière de la France, 2009).
- Lipgens, Walter (dir.), *Sources de l'histoire de l'intégration européenne(1945-1955), guide des archives conservées dans les pays de la Communauté*(Brussel: Bruylant, 1980).
- _____, (dir.), *Documents on the History of Europe an Integration*, Vol. 1, *Continental Plans for European Union, 1939-1945*(Berlin and New York:

- De Gruyter, 1985); Vol. 2, *Plan for European Union in Great-Britain and in Exile*(Berlin and New York: De Gruyter, 1986).
- Lipgens, Walter, Loth, Wilfried (dir.), *Documents on the History of European Integration*, Vol. 3, *The Struggle for European Union by Political Parties and Pressure Groups in Western European Countries, 1945-1950*(Berlin and New York: De Gruyter, 1988); Vol. 4, *Transnational Organizations of Political Parties and Pressure Groups in the Struggle for European Union*(Berlin and New York: De Gruyter, 1991).
- Milward, Alain S., *The Reconstruction of Western Europe, 1945-1951*(London, 1984).
- Montarsolo, Yves, *L'Eurafrique, contrepoint de l'idée d'Europe: le cas français de la fin de Deuxième guerre mondiale aux négociations des traités de Rome*(Publications de l'Université de Provence, 2010).
- Moravcsik, Andrew, *The Choice for Europe: Scioial Purpose and State Power from Messina to Maastricht*(Cornell University Press, 1998).
- _____, "Charles de Gaulle and Europe: The New Revisionism", *Journal of Cold War Studies*, Vol. 14, No. 1(2012).
- Nuenlist, Christian, Locher, Anna and Martin, Garret (eds.), *Globalizing de Gaulle: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French Foreign Policies, 1958-1969*(Lexington Books, 2010).
- Renault, Stéphane, Gallo, Max et Stora, Benjamin, *De Gaulle: Un destin face à l'histoire(1958-1969)*(L'express, 2011).
- SU, Hungdah, *Jean Monnet face à la politique européenne du général de Gaulle de 1958 à 1969*(Université de Paris-Sorbonne: Paris IV, 1998).
- Vaïsse, Maurice, *La grandeur: Politique étrangère du général de Gaulle, 1958-1969*(Fayard, 1998).
- Verrier, Anthony, *Through the Looking Glass: British Foreign Policy in an Age of Illusions*(London: Cape, 1983).
- Zouiri, Hassane, *Le partenariat euro-méditerranéen: contribution au développement du Maghreb: le cas du Maroc*(L'Hamattan, DL 2010).

영국의 EEC 가입에 대한 드골의 기자 회견:

<http://fresques.ina.fr/de-gaulle/accueil>(검색일: 2016년 10월 10일)

〈Résumé〉

L'Europe sans le Royaume-Uni: la politique de l'intégration européenne de De Gaulle en vue de 'l'Europe pour la France'

Yoo-Joung KIM

Cet article a pour but de démontrer la politique de De Gaulle pour l'intégration européenne. Pour arriver à ce but de la recherche, l'analyse se concentre sur le veto de De Gaulle contre l'adhésion britannique à la EEC en 1961. De Gaulle était contre la méthode supranationale d'intégration européenne à laquelle 'les Pères fondateurs' de l'intégration européenne étaient favorables. Mais lorsqu'il a dirigé la politique européenne dans les années soixantes, il a non seulement accepté l'intégration économique mais aussi contribué au lancement du marché commun et de la CAP. En vue d'établir 'la grande France', De Gaulle résolut de se diriger vers l'Europe au lieu d'une voie impériale et en même temps de construire une "Europe pour la France". Pour y parvenir, De Gaulle rejeta la Communauté européenne supranationale et a choisi la petite Europe sans le Royaume-Uni. La politique d'intégration européenne de De Gaulle peut être définie comme l'utilisation du plan européen pour la France.

〈Abstract〉

Europe without the United Kingdom: De Gaulle's European Integration Policy for the Purpose of 'the Europe for France' in the 1960s

Yoo-Joung KIM

This study aims to explain the character of de Gaulle's policy of the European integration, focusing on de Gaulle's veto against the British accession to the EEC in 1961. De Gaulle was against the supranational method for European integration to which its 'Founding Fathers' of European were favorable. But when he personally led French European politics, he has not only accepted economic integration but also contributed to launch the common market and CAP. In the 1960s, in order to establish a great France, de Gaulle determined to go an european way instead of an imperial way and at the same time tried to build a 'Europe for the benefit of France'. For this purpose, de Gaulle rejected the transnational European Community and chose the smaller Europe without the United Kingdom. De Gaulle's European integration policy can be defined as the use of the European plan for the France.